



“가을 낭만 가득”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손님맞이 준비 ‘착착’

본격적인 가을 절기에 접어든 가운데 화순군이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10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17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전역(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에서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 화순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 고인돌 가을꽃 축제 일정 등을 확정했다.

오는 10월 개최될 가을꽃 축제는 명성에 걸맞게 화순 도곡면 효산리 등 4ha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에 국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 경관 작물 10종을 식재하고, 핑메바위 꽃 조형물 등 8종 174점을 축제장 곳곳에 배치한다. 또한 400여점의 국화 작품 전시와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특별히 지난 축제와 달라진 것은 화순군 축제 최초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입장료는 1인 5천원이지만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된다. 상품권은 축제장은 물론 화

국화·코스모스·해바라기 등 4ha...400여점 작품 전시
무료 축제 첫 전환...내달 19·26일 야간 DM콘서트도

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민 등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시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화순군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토요일인 10월19·26일 이틀동안 오후 9시까지 야간 경관, 2024

DM콘서트를 개최해 가을의 낭만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판매 부스에서 군에서 준비한 다화용기를 사용해 판매하고, 관광객들은 취식 후 다화용기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군은 축제 판매부스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화용기 사용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화순미림(야외카페), 고인돌 책방 등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축제장 곳곳에 대폭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쉽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안식처로 확실하게 각인 시킬 예정이다. 같은 기간 열릴 예정인 도심 속 남산 축제(가제)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고인돌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화순읍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 각종 이벤

▲화순군이 오는 10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17일간 화순 고인돌유적지 전역에서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축제 현장. (화순군 제공)
트를 기획하고 있다. 조형체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올해 가을꽃 축제는 입장료를 받는 만큼 지난 축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더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이번 축제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민선 8기 성과 가시화 집중”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서 공약사항 점검

광양시는 “최근 시정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항과 2024년 주요 사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추려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25년은 민선 8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 만큼 보고회에 참석한 정인화 시장과 관계부서 직원들은 시민과의 약속인 113건의 공약사업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효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각 부서에서는 ▲책GPT 도입을 위한 스마트 행정 구현 ▲희망누리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어린이집 AI푸드스케너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

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확대 지원 등 총 27건의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정 시장은 각 사업의 세부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장들과 직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화 시장은 “내년에는 신산업, 관광, 농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민선 8기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기업들의 활동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이뤄져야 하며 효율성이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 사업들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광양=양홍렬 기자



고흥군이 최근 관내 음식점주들이 모인 가운데 이유식 세트를 초청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장어요리를 선보였다. 사진은 왼쪽부터 아메리칸 BBQ장어, 장어갈비찜, 탕수장어, 불장어튀김. (고흥군 제공)

고흥군, 녹동장어요리 어린이 메뉴 개발

이유식 세트 초청...장어 갈비찜·BBQ·튀김 등 시연

고흥군은 “최근 녹동장어거리에서 음식점주들이 모인 가운데 이유식 세트를 초청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어요리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연행사는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창의적인 장어요리와 유아 등 고흥의 건강한 재료 사용을 강조해 기존 장어요리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다. 시연 후에는 이유식 세트가 직접 음식점주들에게 레시피를 전수하고, 메뉴 개발에 필요한 조리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어 갈비찜, 아메리칸 BBQ 장어, 칠리소스를 곁들인 중국식 장어요리, 탕수 장어 소스, 불장어 튀김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맞춤형 메뉴 개

발 컨설팅은 업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녹동장어거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녹동장어거리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녹동장어거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 메뉴 개발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영양적 가치와 녹동장어거리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진행한 이유식 세트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회사인 '오뚜기'의 마스터 셰프로 활동 중이며, 포브스코리아 한국의 젊은 파워리더 30인에 선정된 바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여수시, '제1회 국제 웹페스트' 막바지 총력

웹드라마·웹영화·숏폼 등 76개국서 1천306편 접수

여수시가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개최를 앞두고 수상작 선정에 마무리하며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국제 웹페스트'는 웹드라마, 웹영화, 숏폼 등 변화하는 영상산업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첨단영화제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웹페스트 참여 작품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76개국에서

출품한 1천306편의 웹콘텐츠를 접수했다. 이는 시가 당초 계획했던 모집량의 10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67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2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해 오는 6일 시상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본선 진출작 67편은 CGV 여수 옹천점과 GS칼텍스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무료로 상영된다. 부대 행사로는 오는 5일 오후 2시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웹콘텐츠의 발

전 방향과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주제로 한 포럼과 같은 날 오후 8시 옹천천수공원에서 4천여명의 촛불과 클래식 향연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열린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역사의 첫걸음이 될 여수 국제 웹페스트를 성공 개최해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가치와 명성을 높여겠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은 오는 4일 오후 5시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개최되며, 6일 오후 5시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레드카펫 행사와 시상식(어워즈)이 예정돼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군, 계절근로사업 확대 추진

96%재고용 의사...육과농협·석곡농협 등 참여 논의

곡성군은 2일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곡성군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라오스에서 온 계절근로자 30명을 비롯해 187개 농가에 총 2천738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고용 농가의 96%가 내년에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큰 호응을 얻었다. 농가들은 근로자의 성실성, 저렴한 인건비, 적시 인력 공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곡성군은 올해 사업에서 수렵된 다

양한 의견을 토대로 곡성농협 외에도 육과농협, 석곡농협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며, 참여 농가의 필요 사항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앞으로 수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침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에 힘쓸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구례군 '협력·소통' 워크숍 성료

구례군은 “최근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부서를 이끄는 중간관리자인 6급 공무원들의 리더십 함양과 조직 내 소통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구례군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팀빌딩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 증진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 방안 모색 ▲군수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소통 채널 확대 ▲지역 문화 탐방을 통한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군수와 직원 간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구례군은 7월 8·9일,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을 진행하며 조직의 화합을 도모한 바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등 필수교육 진행

담양군은 “최근 담빛농업관에서 고온기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관리 종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했다. 교육은 안전한 농작업 실천을 위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법과 농업인 안전재해 사례 및 예방법,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필수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김나빈아 담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은 “무더위 속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업인들의 안전 의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은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동·농협, 안전문자 발송, 농가·농작업현장 예찰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법을 담양군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해 적극 홍보·안내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